



착한 삶의 사분법 이야기

학술위원 라 상 면
(전남 보광원한약방)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가없는 우주 속에서의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삶의 종착점이 죽음이라면, 죽음을 향해가는 삶이라면 삶 자체가 모순덩이 아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유사이래 많은 사람의 의문을 여러 인물이 답하였지만 아직도 명쾌한 확답이 없고보면 삶 자체가 모순인 까닭인듯 하다.

부처님 시대에도 가끔 의문을 품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찾아왔든가 보다 「세존이시여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 어떻게 비롯된 것 입니까? 바른 삶을 일러 주십시오.」

「...」

정확한 답을 주셨지만 이해하는 인물은 극소수로 보여진다

지금도 우리는 더러 어린자녀로부터 심각한 질문에 접할 때가 있다.

「엄마가 나를 낳는가? 어떻게 만들어서 어디로 낳는가?」

엄마들은 여러가지로 설명하여 주지만 아이들에겐 이해가능한 답변이 못 되므로 결국에는

「지금 엄마가 아무리 이야기 해도 넌 아기라서 모른다. 어른이 되면 저절로 알게되니 이제 그런생각 잠시 접어두고 다른일에 관심을 갖자. 썩썩한 사람, 바른사람, 똑똑한 사람될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로 유도한다.

붓다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계셨다.

“어느 사람이 벼들과 어울려 사냥을 하는 중에 화살을 맞았다. 친구들이 모여들어 가슴에 박힌 화살을 제거하고 서둘러 치료를 하자 하는데, 벼이여 잠시 기다리라 이 화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동쪽에서 날아왔는가. 남쪽에서 날아왔는가 재질은 무엇으로 되었는가 짐가가 쏘았는가. 염씨가 쏘았는가. 축에 바른독의 종류는 무엇인가. 죽일려고 쏘았을까 실수로 쏘았을까. 활은 크고 강한 것인가 보통활인가. 이렇게 충분히 분석검토하고 치료하자고

고집하면 결국은 생명을 잃고 만다.” 하셨다.

인간의 삶도 이와 같아서 우주는 무엇인가 시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보다는 바르게 사는 일이 우선이다. 그러므로 붓다께서 사분법(四分法)을 설 하셨던듯 하다. 서양의 어느 철인이 인간의 특성중 하나를 일러 「경제적 동물이다」고 정의 하였는데 공감한다.

사회를 형성한 이래로 미래까지 경제와는 불가분의 관계다.

인간이 경제적 능력을 갖고자하는 이유는

- ① 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양육코자 함이다.
- ②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함이다.
- ③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약간의 저축을 두고자 함이다
- ④ 올바른 직업을 발전시키고자 함이다.

이상 4가지가 선생경(善生經)의 사분법인데 작금 세태를 보면 능력이 넘치는데도 부모봉양을 소홀히하고 어려운 형제 친척 이웃을 도외시하니 뜻있는 이들의 가슴앓이가 되고 있다.

개개인이 경제력을 얻기위하여 직업을 갖게 되는데 자신과 타인과 사회에 폐해가 되지 아니하고 보탬이 되는 업 이라야 바른직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을 영위할 직업에 대한 직업적 수양이 필수적이다 기술적이면 기술연마가, 교수는 학문적 성취가 필수라는 뜻이다. 직업적 수양없이 경제력을 갖고자하면 노력의 결실이 아닌 갈취 요행 사기 도적 강도 부정부패가 난무하게 된다. 깨끗치 못한 돈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이미 오염된 자녀가 된 것이다. 얼마나 호화롭게 사느냐 얼마나 큰 권력을 휘두르며 살았느냐가 출세가 아니며 바르게 덕있게 살았느냐가 출세의 가늠자인 것인데 본말이 전도된 사고가 많은 사람의 가슴에 굳어있는듯 하여 고뇌스럽다

인간을 올바르게 가꾸어주는 바른직업은 꾸준히 발전시켜서 더 큰 덕이 되게 하여야 한다.

사람다운 품성의 발로로 처음에 바른 직업을 선택하였으면 직업적 수양을 쌓고 꾸준히 발전시켜서 노력의 결실을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기대치의 성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데 조바심하고 너무 힘이 든다하여 노력도 안하고 기다리지도 않고 큰 소득만을 욕심내면 이는 뼈뚜루사는 삶으로써 자신과 사회를 다 타락시키게 된다.

한 그루의 비파나무를 심어도 10년은 잘 가꾸어야 결실이 나는 것인데 인생 70을 영위할 직업에 대한 반10년의 수양도 없이 소득이 흠족치 않다하여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하다가 종당에는 그릇된 길로 접어드는 줌스러움을 빨리 벗어나 하리라 본다. 지금의 자신은 부모로부터 비롯되었으니 성심으로 모셔야 한다 부모님들께서 각고의 노력으로 자녀를 양육, 교육하여서 어느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장성시켜 놓으면 부모는 안중에 적고 스스로 잘나서

성공한줄로 착각하여서는 안된다.

자녀는 부모의 뒷 모습을 보고 자란다. 입으로는 바르지만 실지 행동은 그릇되고 대중앞에서는 훌륭하고 뒤에 숨어서는 온갖 험오스러운 행실을 하면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그 자녀들은 너무도 정확히 알며 말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뒷모습을 그대로 닮게 되는 것이다. 어느 부모가 자기자녀를 반이나 썩은 고름푸대가 되기를 바라겠는가. 그러므로 자기의 뒷모습을 바르게 하여야 부모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며 연후에야 교육의 황금빛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다. “눈물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우리의 주위에는 눈물로, 한숨으로, 주름으로 짓눌린 이웃들이 가끔 있다. 보고도 못본체 한다면 사람의 정이 아니다 인간의 가슴에서 정이 사그라져 간다면 다함께 붕괴되고 만다. 작은 것 이라도 따뜻한 정으로 보태어 북돋아 주어야 자신과 우리가 다 함께 바른 삶의 길을 가는 것이다

붓다의 사분법이란 결국 “올바른 직업적 수양으로 바른 직업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여 발전시켜라. 돈이란 쌓아두기 위하여 버는 것이 아니다. 부모님을 봉양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어려운 형제 친척 이웃을 돕는데 필요한 것이다. 미래의 어떤 일이나 노후를 대비하여 약간의 저축도 하여라” 하는 내용이었다.

한 시대를 같이 사는 우리가 다 함께 바르게 걸어지기를 염원한다

